



헤딩슛 K리그 최강자인 광주 북이(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19일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헤딩슛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는 올 시즌 머리로 5골을 넣으며 16개 구단 중 가장 많은 헤딩골을 기록했다. 북이는 2개의 헤딩골을 성공시켰다. <광주 FC 제공>

‘5득점 9실점’ 광주 헤딩골에 웃고 울고



■ A매치 브레이크 ... K리그 기록들

초반 2위 돌풍 광주 13위 추락 ... 전남 6경기 무승부

지난 3월3일 시작돼 숨가쁘게 달려온 K리그가 14라운드 경기를 끝으로 A매치 브레이크에 들어갔다.

2012 K리그 그라운드에는 어떤 기록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을까?

1위 서울과 2위 수원 14라운드까지 9승을 거두며 최다승을 기록했다. 허정무 감독이 중도사퇴하는 아픔을 겪은 인천은 단 1승만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개막 후 5경기 연속 무패행진으로 2위까지 치고 올랐던 광주는 초반에 거둔 3승(5무6패)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며 13위까지 내려앉았다.

전남과 부산은 전체 경기의 43%에 달하는 6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남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4승6무4패로 8위에 자리하고 있다.

수원은 홈에서 17득점 3실점을 기록하는 막강 경기력으로 8전 전승이라는 안방불패를 만들었고, 서울과 제주 역시 각각 6승1무로 홈 승률이 92.9%에 이른다. 광주와 상주, 인천은 홈에서 각각 1승씩만을 얻는데 그쳤다.

제주와 전북은 27골을 몰아넣으며 막강화력을 뽐냈고, 부산은 단 7실점만을 기록하며 철벽 수비를 과시했다. 광주는 20골을 터트

리며 득점 부문 전체 5위를 기록했지만, 가장 많은 28골을 내주며 순위 싸움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의 데얀(10득점)과 풀리나(8도움)는 각각 득점과 도움 1위에 자리하며 팀의 1위를 이끌었다. 특히 데얀이 기록한 10골 중 5골은 영양가 만점의 결승골. 또 데얀의 10골 중 6골을 풀리나가 도우면서 ‘데몰리션 콤비’는 올 시즌 최고의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김은선-이승기가 3골을 합작하며 최고의 호흡을 과시하고 있다.

광주의 득점 1위는 5골을 넣은 중앙파울

로가 차지했고, 김은선과 북이는 4골씩을 넣었다. 이승기는 4차례 골을 도우며 도움 순위 7위에 올라 있다.

세트 플레이 강자 타이틀은 전남이 차지했다. 전남은 전체 13골 중 4골을 세트플레이(비율 30.8%)로 성공시켰다. 광주도 20골 중 3골을 세트플레이로 만들어내며 20%의 비율을 보였다.

K리그 최강신 북이를 앞세운 광주는 서울과 함께 가장 많은 5골을 머리로 넣으며 장신군단의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헤딩 실점 역시 가장 많은 9실점으로 헤딩골에 웃고 또 울었다.

4득점 2골을 기록하며 광주의 공격에 새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외국인 선수 북이는 14경기에서 42개의 파울을 기록하며 수위 라운드치와 함께 최다 파울의 불명예스러운 주인공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월드컵 4강 신화 10년’ ★들은 지금 ... 박지성·차두리 유럽서 활약 ‘월드스타’

홍명보·황선홍·유상철은 감독

김남일·이운재·설기현 선수로

2002년 5월31일은 한국의 월드컵 4강 신화가 시작된 날이다.

2002 한일 월드컵 10주년을 맞는 해, 안정환 K리그 명예 홍보탑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2 월드컵 멤버와 2012 K리그 올스타가 맞붙는 ‘2002 월드컵 대표팀 초청 K리그 올스타전’을 제안했다.

월드컵 스타들의 올스타 무대가 예고되면서 4강 신화 주역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붉은 열기로 물들였던 2002 월드컵 멤버의 반은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그라운드에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

폴란드를 상대로 나란히 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월드컵 첫 승을 이끌었던 황선홍과 유상철은 K리그 포항 스틸러스와 대전 시티즌 감독으로 선수들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이번 올스타전에서 제자들과 맞대결을 벌이는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

철벽수비로 한국의 승리를 지키던 홍명보·최진철·김태영도 지도자로 변신해 또 다른 영광 재연을 위한 후배 양성에 힘을 쓰고 있다.

특히 홍명보와 김태영은 2012 런던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과 수석코치로 호흡을 맞춰 올림픽 새 역사에 도전한다.

아직도 팬들의 함성 속에서 굼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베테랑들도 있다.

나이를 잊은 ‘거미손’ 이운재는 전남 드래곤즈의 수문장으로 맹활약하고 있고, 김병지도 K리그 최초로 500경기 출장 기록을 쓰며 경남 FC의 골문을 지키고 있다.

해외에서도 2002 태극전사들의 활약을 계속되고 있다.

월드컵을 통해 스타가 된 박지성과 이영표 그리고 차두리는 유럽과 북미로 세력을 넓혔다.

국내로 돌아온 ‘진공청소기’ 김남일과 16강 이탈리아전 극적인 동점골의 주인공 설기현은 올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면서 한숨을 먹고 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축구를 위한 열정을 쏟고 있는 이들은 ‘2002 월드컵 대표팀 초청 K리그 올스타전’을 위해 오는 7월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집결한다.

월드컵 4강을 지휘했던 허딩크 감독도 “2002 한일월드컵을 기념하는 이번 올스타전에 꼭 참석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2012년 여름은 축구 열기로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홍보대사인 안정환이 시각장애 골키퍼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오늘 나주시 개막

‘가슴펴고 더 높이! 희망모아 더 멀리!’

제20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가 31일 오전 11시 나주시 다목적 체육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막을 올린다.

장애를 넘어선 이들의 도전은 1일까지 이틀간 주경기장인 나주 공설운동장을 비롯해 17개 경기장에서 계속된다.

전남장애인체전이 처음 시작됐던 초대 개최 나주에서 맞는 20번째 체육대회는 22개 시·군 선수단 2034명이 고장의 명예를 걸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기진행요원 1566명도 축제 한마당에 함께 한다.

여수가 가장 많은 185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우승에 도전하고, 지난해 우승팀 목포는 175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연패를 노리고 있다.

선수단은 론볼, 보치아, 육상 등 13개의 정

식 종목과 4개의 시범종목(게이트볼, 다트, 바둑, 파크골프), 4개의 체험종목(서플로이드, 컵링, 타겟 3종, 핸들러) 등 총 21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이게 된다.

메달집계 방식으로 대회성적이 가려지며 종합 1·2·3위(상장, 우승기, 트로피)와 종목별 시상식이 이뤄진다. 최우수선수상, 모범선수단상, 성취상, 장려상 등도 마련됐다.

이번 대회 최고령 참가선수는 불림에 참가하는 김대수(79·무안)옹이며, 최연소 참가선수는 배드민턴에 출전하는 이원재(15세·영암)군이다.

방곡길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장애인체육대회는 도내 장애인 선수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과 장애인의 건강과 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국립공원 16좌 고객원정대' 모집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두번째 신행 6월 21~22일(무박2일) / 주왕산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최 |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 주관 | Mtour

후원 | 60 광주일보사

프로야구 경기장서 F1 홍보

KIA 등 5개 구단 협약 체결

F1대회조직위원회와 프로야구 구단들이 F1 한국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공동 홍보에 나섰다.

F1조직위는 최근 KIA와 넥센·롯데·한화·NC 등 5개 프로야구 구단과 공동 홍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구단에서는 구장 전광판에 F1 동영상 상영하고 포스터를 붙이며 응원등을 통해 F1을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구단들은 홈구장을 찾는 관중들에게 F1 입장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고 구단 차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F1조직위는 각 구단에 2012 F1 한국대회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을 협찬한다.

2012 F1 한국대회는 오는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영암 F1경기장에서 열린다. 입장권은 F1 공식 홈페이지(www.koreangp.kr)나 옥션타켓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사랑하는 아리랑하우스 여/름/매/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